

신앙 성장 시리즈 4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한국오늘의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4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 1994, 2012 RBC Ministries,
Grand Rapids, MI, Printed in USA,

인 쇄 : 2014년 11월 24일
발 행 : 2014년 11월 30일
저 자 : David Roper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교 열 : 성지현, 정진배,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발간사	4
저자 소개	7

첫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8
둘째, 휴식과 회복	23
셋째,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33
넷째,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37
다섯째, 하나님께 응답하기	50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은 마치 낮과 밤과 같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천지가 개벽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이슬람은 자기 종교를 위해 자폭한다.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어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즐겁게 목숨을 바친다. 자기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적으로 보고 참수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최선의 업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 속에 넉넉함과 휴식이 있고 평화가 있다. 지친 삶으로부터의 회복이 있고 올바른 길이 있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있고 안전한 길잡이의 동행이 있다. 위로가 있다. 이 고백 속에

풍성한 잔치상,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안식의 소망이 있다. 짧은 여섯 절의 시편 23편은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랑 받고 애송되는 신앙고백이 되었다. 이 작은 책이 반드시 큰 힘을 공급해 줄 것이다.

2014년 11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상복 목사

저자 David Roper(데이비드 로퍼)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로퍼는 30년이 넘게 목회를 인도하다가 지금은 목회자 부부들을 격려하기 위한 수양회 사역인 ‘아이다호 마운틴 미니스트리’를 아내 캐롤린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낚시, 하이킹, 그리고 드보라와 같은 아내 캐롤린과 함께 시냇가에 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찰스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용기 있는 영혼을 지닌, 작지만 강한 들쥐 리피칩(Reepicheep)이며 성경의 인물 중에는 결코 은퇴하지 않았던 나이든 성도 갈렙을 좋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경배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냉혹한 종교들, 차가운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준 목사들이나 사제들에 대한 기억들, 또는 감정적으로 단절되고, 인정사정없고 무능했거나 아예 없던 아버지로 인해 받았던 유년 시절의 고통으로 흐릿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관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은 모든 이들이 봉착할 질문으로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시 23:1)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주목할 만한 답을 주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평범한 비유지만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 중 한 부분은 목자와 그가 돌보는 양들을 묘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과 우리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린 그림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시편이 대단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말들을 마치 우리가 한 말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관념들은 인간이 지닌 공통적인 경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꼭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목자 다윗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들에 있는 양들’(삼상 17:28)을 돌보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황야는 세상에서 가장 배울 것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황야에는 놀 거리도 거의 없고 쓸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사물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사물 자체의 의미에 대해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 같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방어능력이 없고 무력한 양들에게 필요한 끊임없는 보살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양들이 어리석게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그들에게 항상 안내자가 필요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르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인내를 생각했습니다. 양들을 위험한 곳에서 끌고 나왔을 때 양들이 그의 발꿈치에 바짝 붙어 웅기종기 모여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양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하며, 지켜야 하며 그들에게 풀밭과 조용한 물가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매어준 양들의 멍들과 긁힌 상처를 기억했고 얼마나 자주 양들을 위험에서 구해내야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양도 자신이 얼마나 돌봄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와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고대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독특한 모습, 특이한 반점들, 행동 경향, 별난 기질에 익숙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목자들이 양을 몰지 않고 이끌었습니다. 아침에 목자들이 각기 독특한 소리로 양들을 깨우

면 각각의 양 무리는 일어나 그들의 목자를 따라 초장으로 가곤했습니다. 두 양무리가 서로 뒤섞여 있을 때에도 두 명의 목자들이 동시에 자신의 양들을 부르면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들은 그들이 평화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풀이 많은 초장과 아늑한 물가를 찾아 황야를 헤매는 그들의 목자를 따라 다닙니다.



고대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독특한 모습, 특이한 반점들, 행동 경향, 별난 기질에 익숙했습니다.

일 년 중 일정기간 동안은 양 무리들을 포식동물이 숨어있는 더 황량한 광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항상 잘 지켜집니다. 목자들은 “곤봉”을 허리 띠에 매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여 양들이 위험한 장소로 가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방황하는 것을 막습니다. 곤봉은 들짐승들을 쫓아 보내기 위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다”(삼상 17:34-35)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아주 사소한 해라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양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양을 찾으면 어깨에 지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목자들은 자신의 양 무리를 우리 안에 안전하게 넣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 앞에서 잠듭니다.

요한복음 10장 7-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은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혼자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 줄 한 줄을 써나가며 다윗이 구상했던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양들의 위대한 목자

다윗이 목자의 노래를 쓰고 나서 수백 년 뒤, 예수님이 조용히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1-15).

이 분이 바로 “양들의 큰 목자”(히 13:20)이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도 우리를 “목

자 잃은 양”으로 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눅 19:10) 왔습니다. 그는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 “아혼아훙 마리를 산에 두고” 나가서 “길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분입니다(마 18:12-14).

F. B. 메이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귀한, 그분 자신의 생명의 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순수하고, 관대한 사랑으로 고동치는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무리 전체를 보시며, 추운 산 속에 뒤퍼떨어져 방황하는 불쌍한 양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목자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거나 저버리지 않으며 우리를 불편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늑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아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목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턱과 곰의 앞발로부터 우리를 잘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목자의 다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데리고 갈 수 없을 만큼 작은 양은 없고, 그가 부드럽게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성도는 없으며, 그가 안식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영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버립니다.

목자들은 종종 도둑이나 포식동물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합니다.

태초 이래로 종교들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했었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그의 체중을 다 실어 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양은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목자가 그의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5-6)

이것은 목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베드로전서 2:24).

그는 인간의 모든 죄, 즉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명백히 보이는 죄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인한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마지막 회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인간은 너무 나빴기

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그 값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 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치유했습니다. 이 일이 끝났을 때 그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은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들 중 이미 받아들인 이들은 더욱더 받아들이면 됩니다.

목자는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생명의 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그는 가장 희미한 울음소리도 듣습니다. 설혹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더라도 그는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절망하여 목자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해도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하

나님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의 꿈이 좌절되게 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세운 계획을 뒤엎어 버립니다.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가치가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려고 거기에 계시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시편 145:18).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가치가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려고 거기에 계시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사편 139: 7-8).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까? 그는 나의 죄를 알고, 나의 방황을 알며, 나의 순종이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크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방종함을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놀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죄성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지, 어떻게 될 것이었는지, 그는 한눈에 모든 것을 꿰뚫어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 어두운 구석과 구멍들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보다 더 깊은 동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요한1서 4:8)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습니까? 어쩐지 공허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만든 하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서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이보다 더 심오한 교훈은 없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분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자상, 안전, 그리고 먹이공급이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의”라는 한 단어가 만드는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계속적으로, 마치 나만 그런 것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나는 양무리 중 하나이지만 나는 특별합니다.

“여호와와는 목자시라.”라고 말하는 것과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 휴식과 회복



우리 자신에게 맡겨두면 우리는 무엇인가 더 알아야 할 것과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인식에 사로 잡혀 안절부절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합니다. 그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눕게 한다”와 “인도한다”라는 동사는 부드러운 설득을 뜻합니다. 목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굵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 줄 장소로 가도록 양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의 “푸른 풀밭”이란 황야에서 목자들이 목마른 양무리를 이끌고 가던 푸른 오아시스였습니다. 양들에게만 맡겨두면 그들은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죽을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목자들은 지형을 알았기에 양들이 먹이를 찾아 먹고, 누워서 쉴 수 있는 낮익은 풀밭과 시냇가로 향하도록 양무리를 몰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그림은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양들이 아니라 누워서 쉬고 있는, 다윗의 표현을 빌면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양들입니다. 동사 ‘**인도하다**’는 느리고 여유로운 발걸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휴식의 한 장면입니다.

목자들의 공통적인 일과는 이른 아침에 거친 초원에서 양무리를 풀어먹이고, 오전에는 양무리를 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가 한낮에는 그늘진 시원한 오아시스로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라는 이미지에서는 휴식이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휴식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 “무엇이 당신 안에서 내가 휴식을 얻을 수 있게 할까요? 그래서 나의 분주함을 잊을 수 있고 내 삶에서 유일하게 좋은 당신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이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2).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잡니다(요 10:3-4).

하나님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고 쉴 곳으로 인도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제멋대로인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짖은 것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졌을 때 느낀 외로움을 암시합니다. G. K. 체

스터튼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외로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와 떨어진 것을 견딜 수 없으며,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라는 견해를 나는 좋아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관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는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우리의 깊은 곳을 향하여 부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시 42:7)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 27:8).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품은 뜻을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민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우리를 찾으며 우리를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나의 관점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제 그 관계는 의무가 아니며 내가 자신에게 부과한 매일 앓았다 일어나기 100번, 팔굽혀펴기 50번 하기 같은 운동요법 훈련도 아닙니다. 평생 계속해서 나를 부르는 그 분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유의 뒤에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풀밭”이며(렘 50:7) 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는 연못입니다. 그가 우리의 참된 영양분이며,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만약 그를 우리 안에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굶주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식혀줄 수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27, 35)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말콤 머거리지의 고백은 이러한 견해를 감동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을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걷다보면 가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것은 명성입니다. 나는 국내 납세자 중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을 만큼 긍정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돈과 약간의 명성이 있고, 의향만 있으면, 노인일지라도, 최신유행의 오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 이기는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이나 혹은 내가 쓴 글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성취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기아상태에 제공되는 생명수 한 모금과 비교해보면, 이 작은 승리들이 백만 개로 늘어나고, 그것을 모두 더한다 해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작은 명백한 방해물임을 믿어달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다시 상징주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렇듯이 과정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시 42:1-2)



하나님은 참 인간입니다. 그 분은 사람이 만든 발명품도, 개념도, 이론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투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경탄스럽게 살아계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 분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입니다. 그 분은 사람이 만든 발명품도, 개념도, 이론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투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경탄스럽게 살아계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다윗의 평범한 말에 의하면 그 분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한 섭리의 깊이로 다른 사람들 누구나가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바라며,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이로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친밀도를 더해 가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약간만 다가가도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그분과 가깝습니다. 만약 ... 당신이 하나님을 구주로 찾는다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약속했습니다(신 4:29). 그리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신 4:29).

하나님을 너무 힘겹게 또는 오래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롬

10:8-9). 그러나 그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전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분과 맺어지려는 소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더 이루어야 할 것이 틀림없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불만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합니다. 이러한 체념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 원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이것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시 63:1).



셋째,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작**게 시작해서 **빨리** 출발하라” 이 말은 웨이커 교도들의 옛 교훈입니다. 일을 단순하게 보고 빨리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혼자 있을 때 시작됩니다. 단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헨리 나웬은 말했습니다. “호젓함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분만을 위해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곁에 계시면서 실제로 치유하고, 가르치며, 인도해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혼자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의 소음과 부담들 가운데서 조용한 곳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군중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호젓함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 6:6).

마치 우리집 벽장문처럼 가까운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곳 말입니다.

수백 년이 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장소를 찾아서 지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둘이 친밀해질 장소를 찾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 곳이 하나님이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자주 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그곳으로 되돌아오고 싶을 것입니다.”라고 토마스 아 캠퍼스가 말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 57:8)라고 말했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헛뜨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고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침은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시간에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결

정할 성격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장점은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침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은 성경, 조용한 곳,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가 당신의 가슴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당신을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넷째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음으로 시끄럽거나 마음가짐이 차분하지 못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드리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경건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사 55:2-3 강조).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렘 15:16)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발아래 앉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양식을 먹이게 하십시오.

듣는 기도를 영적으로 실행 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기도 중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하는 대신 듣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문구에 통달하여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

하고, 이론과 신학을 취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더 지성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더욱 열중합니다.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살던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읽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직자들은 인간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언급할 때 “거룩한 진리”, “거룩한 책”, 혹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요 5:37).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진리로 채워지며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스쳐지나가는 기쁨, 발견의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자체로 끝이 아니며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의 자극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의식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성경 한 절, 혹은 한 단락, 혹은 한 장을 선택하여 거듭거듭 읽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함께하시며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밝혀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 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형상을 이루기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의 마음”(고전 2:16)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마음을, 즉 그분께서 이는 것, 느끼는 것, 원하는 것, 즐기는 것, 열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중오하는 것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각 단어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이 열리고 당신의 가슴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으로써 묵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장 뻘에르 드 꼬사드는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 조용히, 천천히, 단어 단어마다 마음보다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이 진리들이 영혼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잠깐잠깐씩 휴식을 가지십시오.”

느리고, 조용하게, 기도하듯 성경을 읽는 것은 **Lectio Divina**라고 하는데 이는 성스러운 독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세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고전적인 방식인데 특정 성경 구절을 영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기도하듯 면밀하게 읽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시 37:3). 그의 자비하심과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시 48:9). 그의 말씀을 맛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 34:8).

묵상은 우리의 기질, 가족, 직장 업무 부담, 건강상태, 나이와 정신적 성숙도에 많이 좌우됩니다. 처음 10분에서 15분까지는 우리 모두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매일 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오래 묵상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일단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갈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시 27:4)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계속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들은 우리가 놓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 버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

가 감당하지 못하리라”(요 16:12)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 많지만 몇몇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 될 때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통찰력은 순수한 마음, 즉 사랑, 겸손, 순종하려는 소망에서 생겨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순종하기를 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만 자랍니다. 묵상과 기도가 씨앗에 물을 줌이 분명하고, 순종은 씨앗에 빛을 줍니다. 그러면 씨앗은 주님의 추수에 대비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기는 것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할까요?

마들린 랭글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 마음에 번민 없이, 반신반의 하는 일 없이, 의심 없이, 때로는 절망감도 없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개념만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의 게임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다윗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들과 의심들을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은 불편함과 하나님의 방식과의 불일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매 패이지를 혼란과 불신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설임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디어지거나 감정적으



만약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우리의 시간의 가치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항상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마음을 그 분께 드리십시오.

로 단조롭고, 따분하며, 피곤합니다. 그런 때 굳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거나 더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우리의 시간의 가치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항상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우리의 가슴이 식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마음을 그 분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은 노력보다는 복종함으로써 생기는 것
이다. 골로새서 2:6-8:17 참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가슴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신 그

분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빌립의 부탁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신비주의자들, 사상가들, 도덕론자들, 신앙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종교적인 추구 뒤에 있는 절실한 갈망을 심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라는 교리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의 꾸짖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게 감지하며, 그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진

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진실임을 압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 유일무이하고, 견줄 데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복음서의 주된 활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실존하며, 인격적이며, 이해 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의 보살핌, 고통당함, 눈물, 부름, 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한 지금껏 계속하고 하신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사랑하는 분이며, 그 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의심이나 실망이나 그릇된 판단들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파스칼의 말처럼 “두려움 없이 그 분 앞에 갈 수 있으며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는(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골 1:15) 분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8-9).



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의 꾸밈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희미하게 감지하며, 그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응답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꼭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주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에게 대답합니다.”라고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뫼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된다면 기도란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친구와의 정중한 대화와 같

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는 독백이 아니라 상대방의 열린 마음을 주의 깊게 듣고 대답하는 대화입니다.

나의 동료 중 한 사람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데 그 편지에 우리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권고하고 나무라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내용이 쓰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는 동안 편지를 쓴 사람이 방에 같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질문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보낸 편지 내용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례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다윗의 시편을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시편 109:4에서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라고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고대 성경에는 단순히 “나는 기도이다.”라고 쓰여 있

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기도는 다윗의 생애의 진수였고 그의 재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이며, 그분과의 친밀함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해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보살핌, 애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그의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우리를 창조했고,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렸고, 우리를 온전한 남자와 여자로 만들려는 참다운 의도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예배(worship)의 고어가 **가치 있는 것(worth ship)**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 중에 우



예배의 고어가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장 어려운 일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할 만큼 큰일일지라도 기도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본질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데 친구 사이에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탁한 뒤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젓 떴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젓 떴 아이와 같도다.”(시 131:2)라고 썼습니다. 다윗은 망명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거나 기이한 일을 하셔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이해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고전 2:6-16).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발견될 수가 없으며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의 깊이를 결코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9절)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정말로 들어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 속으로 옮겨 놓습니다. 기도는 위선을 방지하는 우리의 울타리이며 우리가 진실을 알기 시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선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욱 순응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무엇인지의 사이를 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조각난 가슴들에 집중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화하고, 단순화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한데 모두어”(시 86:11 공동번역)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

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들이 그의 관심과 애정을 끌었고 그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인도해주시고 관심사들을 하나로 합하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사 50:4-5)라고 썼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하루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를 다시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공경하고, 그분에게 한 번 더 경의를 표시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문제점들과 가능성에 대한 그의 참신한 통찰력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종일 그분과 함께 합니다. 여행하고, 쉬고, 기다리고, 듣고, 아침에 그분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회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며, 철학자이며, 친구이며, 가장 온화하고 가장 친절하며, 가장 재미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는 일상 속에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장 있음직하지 않은 곳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창 28:16)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쓸하고, 슬프고, 황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쓸쓸하고 처량해서 희망의 빛이 보이



이전에는 마치 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하루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히 13:6)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너무 끊임없기에 하나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때때로 너무 희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무성한 초장은 끝없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물은 잔잔히 깊게 흐릅니다. 거기서 나는 독백합니다.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게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풀을 먹으리라”(겔 34:14).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
르리니 내가 여호와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신앙성장 시리즈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 ❶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판)
- ❷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절판)
- ❸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판)
- ❹ 복 있는 사람(절판)
- ❺ 균형 있는 가정생활(절판)
- ❻ 왜 살아야 하나?(절판)
- ❼ 행복한 결혼생활(절판)
- ❽ 남자다운 남자(절판)
- ❾ 여자다운 여자(절판)
- ❿ 걱정 없이 살고 싶다(절판)
- ⓫ 다시 찾은 사랑(절판)
- 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⓭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 ⓮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 ⓯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판)
- ⓰ 결혼의 약속(절판)
- ⓱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판)
- ⓲ 균형 있는 구원의 신앙
- ⓳ 균형 있는 기독교
- ⓴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 ⓵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 ⓶ 교회지도자의 자격

- ⓷ 갈등해결의 방법(절판)
- 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절판)
- ⓹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절판)
- ⓺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⓻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⓼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⓽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절판)
- ⓾ 금보다 귀한 것
- ⓿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 ⓿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 ⓫ 스트레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 ⓫ 분노가 타올 때
- ⓫ 말이 상처가 될 때
- ⓫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 ⓫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선택인가?
- ⓫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 ⓫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 ⓫ 금보다 더 귀한 지혜
- ⓫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 ⓫ 완벽한 게임 계획(2014 월드컵 특집)
- ⓫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뒤표지의 후원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